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정부, 적극개입으로 추가상승 경계

환율, 1500원대 초읽기

중동사태 장기화에 원화값 하락
유가·에너지 수급 불안감 커져
트럼프-이란, 협상 여부 엇갈려
달러당 1500원 흐름 지속될 듯
당국 개입에 상승폭 제한 예상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 전후에 머무르며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유가 상승 및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권 국가의 통화값이 하락한 영향이다.

◆ 달러당 1500원... 금융위기 이후 최고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2.1원 내린 달러당 1495.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달러당 1517.3원까지 올라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며 4거래일 만에 달러당 1500원 아래로 내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60원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1517.3원)보다 22.1원 내린 1495.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한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가량 상승해 달러당 1500원 전후에 머무르고 있다. '중동사태'가 장기전 국면으로 치닫으며 유가 및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율을 밀어올렸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으로 촉발된 중동사태는 제한적 공습을 통한 단기 결전이라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핵 및 미사일 시설 공습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으며, 이란이 주변국의 미군 주둔지와 주요 도시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중동사태는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에너지전쟁'으로 번진 중동사태
이란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에너지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해협을 봉쇄하고 유조선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30%가 유통되는 경로로,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수입하는 원유 대부분이 이 지역을 경유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의 운송량은 크게 감소했으며, 주요 원유인 서부텍사스

유(WTI)와 브렌트유의 선물 가격도 배럴당 90~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중동사태 발발 이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다.
중동사태가 '에너지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원화, 일본 엔화, 대만 달러 등 동아시아 국가의 통화값은 빠르게 하락했다. 제조업과 전력이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차질이 불가피해사다.
원화값은 연일 달러당 1500원 전후에 머무르며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 중이며, 엔화값은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두며 지난 2024년의 '초엔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대만 달러의 가치도 작년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렸다.
◆ '물밀협상' 한창... 고회환율 우려 지속
유가 상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트럼프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8시간 내에 협상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시작으로 국가 기반시설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인프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나눴으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하기로 했다"라면서 한 발 물러났지만,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발전소 복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라고 맞섰던 이란 측은 협상 사실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리 정부와 외환당국은 환율 상승을 경계하며 적극적인 개입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가타야마 쓰스키 일본 재무상과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22일 지명된 신현승 신임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도 지명 소감에서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을 감안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회환율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고유가 장기화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달러 강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달러당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올해 실질적 성과 창출하는 변곡점으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이사회 재무제표·정관 일부 변경 등 승인 연간 배당금 1만원·2% 자사주 소각도

포스코홀딩스가 24일 서울포스코센터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산업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철강과 이차전지소재를 양대 축으로 하는 '2Core' 사업의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2026년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변곡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북미·인도 중심의 철강 합작투자 실행으로 수익성 확보 ▲아르헨티나 리튬 상업 생산 개시 및 호주 리튬 광산 이익 기여를 통한 이차전지소재 투자 결실 ▲에너지·식량 등 인프라 사업의 밸류체인 확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또 성장의 전제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제58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건으로 안전을 강조하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과 AI·로봇을 접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신임 사외이사는 글로벌 마케팅 및 경영 전문가인 김주연 전 P&G 일본·한국지역 부회장이 선임됐고, 임기가 만료된 김준기 사외이

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됐다. 사내이사로는 정석모 사업시너지본부장이 신규 선임됐으며,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재선임됐다.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는 사장은 가타야마 무이사로 선임됐다.
주주총회 이후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서는 유진영 사외이사 이사회의장으로 선임됐다. 유 의장은 LG화학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이차전지 및 첨단소재 분야의 신기술 개발 전문가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2025년도 재무제표와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등 안건을 승인받았으며, 2025년 기말 배당으로 주당 2500원을 확정해 연간 배당금 1만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발행주식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약 6351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승인받아, 지난 2024년 7월 발표한 '3년간 총 6%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이행하게 됐다. /유혜영 기자 dhalehdhale@



“토털 에너지 기업 전기 사업자 포지션 원년”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핵심사업 집중, 재무 건전성 강화
기술·설비 개선, 본원적 경쟁력 제고

SK이노베이션이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운영 혁신과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주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사진)는 24일 서울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제19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를 토털 에너지 기업으로서 전기 사업자의 포지셔닝을 공고히 해나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본원적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경영과 투명한 소통으로 주주 여러분께 더 큰 가치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주대표는 주총에서 올해 경영 방향으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핵심 사업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순차입금 감축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한다. 이어 시장과 고객 관점에서 기술과 설비를 개선하고 전사적인 고장비 절감과 운영 혁신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배터리·전기·에너지 솔루션 등 성장 영역의 기술과 역량을 강화해 전기화와 AI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 기반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총 6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은 비롯해 김주연 사외이사 재선임, 이복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정관 일부 개정,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19기 재무제표 승인 등이 처리됐다. 새로 사내이사 선임된 장 총괄사장은 에너지·화학 분야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룹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이끌어온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리밸런싱과 재무구조 안정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임으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60%를 넘기게 됐다. 정관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총실의 의무 명시,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 삭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근거 신설 등 주주 권의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담겼다.

추대표는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기초를 재확인했다. 그는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의지와 전략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전기차 수요 둔화 상황을 감안해 수익성 위주의 주·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단순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대응과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원가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올해도 북미 ESS 사업 확대를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보다 6조265억원 늘어난 80조2961억원, 영업이익은 930억원 증가한 4487억원을 기록했다. 추대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 속에서도 SK E&S CIC와의 통합 시너지 창출, 운영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본원적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SK하이닉스, 12조 규모 EUV 장비 도입

(극자외선)

2027년 말까지 2년 걸쳐 순차 도입
차세대 AI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

SK하이닉스가 12조원 규모의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하며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경쟁에서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차세대 D램 공정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

투자로 풀이된다.
24일 SK하이닉스는 네덜란드 ASML로부터 11조9496억원 규모의 EUV 스퀀러 장비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장비는 2027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순차 도입되며, 설치·개조 비용을 포함해 개별 장비 인도 시점마다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EUV 장비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의 핵심 설비로, 확보 여부 자체가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좌우한다. 현재 해당 장비는 ASML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투자는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미세공정 기반 고집적 설계가 필수인 만큼, EUV 도입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